



STORY

친구들과 뛰어 놀다 등나무 쉼터에 앉아 땀을 식히며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던 추억을 생각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냅니다.

지친 하루 속에서 흘린 땀을 위스테리아에 들어와 땀을 식히며 내가 좋아하는 소품들과 직접 만든 소품들을 보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 만든 브랜드입니다.

USED PROGRAM

illustrator / XD

YEAR

2022

CONCEPT



위스테리아는 밝고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이루어져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고 행복한 마음이 드는 소품샵입니다.

LOGO



색다른 디자인을 주기위해 여러가지를 시도해 보았지만 아직은 어려움을 느껴 배치를 색다르게 해보자! 생각하였습니다.

다양한 배치를 해보았는데 i를 하나 빼고 양 옆으로 나머지 글자를 배치해주었고 조금 심심함이 느껴져서 i를 소문자로 해서 그 위에 동그라미를 등나무 쉼터를 표현하면 좋겠다 생각하여 쉼표로 바꿔주었습니다.

COLOR



ICON & SPLASH



처음에는 배경에 그라데이션을 넣어보았는데 인스타그램이 떠오르는 아이콘이 나와서 투명도를 주어서 상징 컬러가 잘 어우러지게 배치하여 만들었습니다.

머리속에 떠오른 아이디어는 많았지만 프로토타입이 능숙하지 않아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생각했던 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더 공부하여 다시 도전해보겠습니다.





